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Ludwig van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번호 37

Anton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브루크너  
교향곡 제1번 다단조

09. 14 Sun

5:00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베토벤과 브루크너

Beethoven  
&  
Bruckner

지휘  
함신익

피아노  
심포니 송

©Kyutai Shim



##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 이사장

문형주

## 부이사장

안정근

## 감사

김일규

## 이사

문형주

안정근

김일규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 2024~2025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 마스터즈 Circle

풍산

## 말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GFS

골프존

##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면사랑

세아제강

영앤진세무법인

## 베토벤 Circle

엔피코리아

최영애

장원기

송백규

## 쇼팽 Circle

문형주

안정근

다진

KNW

박선주

## 모차르트 Circle

코스모엠

김기태

서석호

신영만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 하이든 Circle

고운영

김종혁

신갑순

이근혁

계양 수치과

이숙희

김성렬

백방미

김은주

이용돈

권영성

이미영

최상욱

김종훈

김영기

한문성

김소정

박진형

유소정

박지윤

장윤정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 음악가들과 더불어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만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해온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함신익과 심포니 송 창단 이후에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꿈꾸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응원하는 후원자들이 함께 발맞추어 이뤄갈 것입니다.

##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익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Beethoven &amp; Bruckner

베토벤과  
브루크너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 37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번호 37

- I. Allegro con brio ..... 씩씩하고 빠르게  
II. Largo ..... 아주 느리게  
III. Rondo. Allegro ..... 론도. 활기찬 빠르기로

피아노 김규연

## Intermission

Anton Bruckner  
1824~1896



## Symphony No.1 in c minor, WAB 101

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번호 101

- I. Allegro ..... 활기찬 빠르기로  
II. Adagio ..... 매우 느리게  
III. Scherzo. Lebhaft – Trio. Langsam ..... 스케르초. 활기차게 - 트리오. 느리게  
IV. Finale. Bewegt, feurig ..... 피날레. 빠르고 열렬하게

심포니 송의  
연주자들

<b>예술감독</b>	함신익				
<b>바이올린</b>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김은지	박진영
	강윤서	김민주	김하늘	박연수	박주현
	박지윤	선유란	오하은	이예원	이지현
	이지혜	장민주	정예린	정예은	조정민
	한예진	Jacky Li			
<b>비올라</b>	곽다경	김용수	김효경	송수민	안예림
	유시은	장윤정	Bayarbat Khulan		
<b>첼로</b>	최예지	우아람	권혜림	이혜인	장지혜
	정다인	정혜솔	최 영		
<b>더블베이스</b>	고부현	이동혁	강선률	김가은	김태현
	권미림	박재선	채원정		
<b>플루트</b>	김성찬	최선율			
<b>오보에</b>	김소정	김우영			
<b>클라리넷</b>	조종현	김지현			
<b>바순</b>	김윤지	고경호			
<b>호른</b>	김효정	조종현	김보람	주혜준	
<b>트럼펫</b>	이진규	이혜진			
<b>트럼본</b>	김주형	김재원	김지섭		
<b>팀파니</b>	박세희				
<b>크리에이티브 팀</b>	구헌정	김소정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한오석				

\*약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함신익은 대전시향(2001~2006)과 KBS 교향악단(2010~2012)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4년 함신익과 심포니 송을 창단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 유망 연주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가 다음 세대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뉴월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연주자들을 선발해 2년간 프로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은 뒤 원하는 곳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원들이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함께하는 동안 되도록 심오한 레퍼토리를 다루고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집중하여 연습하도록 합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요.”

지휘자 함신익의 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애

정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지휘자로서 뿔어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

포니, 밀부록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성장의 비결은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진한 연습에서 거두는 실력입니다. 저는 단원들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단원의 실력이 제고되면 연주의 완성도는 배로 좋아집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공연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열정적으로 연주하기에 모두가 특별하게 부각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송년연주회에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베토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연 시간 내내 기립해 연주를 하기도 했다. 심포니 송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연주하는 곡은 다르지만 언제나 특별함을 유지한다. 지휘자의 통찰력에 따른 연주자들의 열정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유니크하기 때문이다. ‘더 왕’ 프로젝트로 전국의 문화예술 소외자를 위해 연주로 공헌하는 것도 심포니 송의 자랑 중 하나다. 더 왕 프로젝트로 음향이 완벽하게 구성된 실내에서만 제 역할을 한다는 기존 오케스트라의 편견을 무너뜨리며 클래식 장벽을 낮춘 결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보다 환경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은 더욱 특별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을 것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도 횟수와 퀄리티 또한 제고할 것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2025년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악이 모든 것인 함신익, 그가 심포니 송과 함께 펼칠 예술가 정신을 기대한다.



피아노  
김규연

Q 심포니 송의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A 실황 중계로 처음 접했던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는 무대 위에서 음악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열정과 에너지가 무대 전체에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함신의 선생님의 감각적이고 재치 있는 프로그래밍과 해석은 늘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Q 이번 연주 준비 과정 중 가장 큰 영감을 준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오롯이 깨어있었는지, 곡의 정신이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늘 기대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과정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영감의 순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Q 심포니 송과 협연이 처음인데 어떤 기대감이 있으실까요?

A 서로 처음 마주하는 만큼 어떤 색깔이 만들어질지 궁금하고, 그 낯설에서 오는 에너지가 설렙니다.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생동감이 있어서, 호흡을 맞춰가는 그 과정 자체가 큰 영감이 되곤 해요. 어떤 대화가 오갈지, 그 순간을 무대에서 함께 맞이하게 될 걸 생각하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Q 선호하시는 레퍼토리가 무엇인가요? 만약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연주하고 싶으신 곡이 있을까요?

A 선호하는 레퍼토리는 시기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굳이 하나를 꼽기보다는, 지금 내가 몰입해서 연주하고 있는 곡이 항상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곡이기도 해요. 마지막 날이라면... 사실 모르고 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런 게 더 우리 삶 같지 않나요?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연주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이 전부니까요.

Q 내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모먼트들이 있나요?

A 그냥 매일매일 음악과 함께 꽤 열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문득 볼 때요. 음악이 늘 같이 있다는 걸 느끼면, 아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싶어요.

#### PROFILE

- 더블린 국제 콩쿠르,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클리블랜드 국제 콩쿠르 등 입상
- 지나 박하우어 영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교향악단, 뉴월드 심포니,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 다수 협연
- 난파음악상, 신한음악상, 운파상, 한국음악협회 신인대상 수상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커티스음악원 디폴로마,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클리블랜드음악원 아티스트 디폴로마, 맨하탄 음대 박사학위 취득
-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작품번호 37

베토벤에게 c단조는 단순한 조표를 넘어 ‘정서적 어젠다’를 의미했다. 이 협주곡은 1800년대 초중반의 창작기(대체로 1800~1803년 무렵)에서 완성되어 1803년경 빈에서 초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베토벤은 청력의 이상 징후와 씨름하는 한편, 교향곡·소나타·실내악 분야에서 파격적인 성취를 계속해냈다. 이 협주곡은 모차르트적 협주곡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주자와 오케스트라의 관계를 ‘대등한 논증’의 장으로 바꾸어 놓는다. 즉, 피아노의 기교는 장식적 과시가 아니라 형식적·논리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형식 자체가 곧 드라마가 된다.

For Beethoven, C minor signaled not just a key signature but an emotional agenda. Likely composed around 1800–1803 and premiered in Vienna in 1803, the concerto belongs to a period of audacious creation even as hearing problems emerged. While grounded in the Mozartian concerto tradition, it reframes the solo–tutti relationship as an arena of equal argument: pianistic brilliance serves structural logic rather than display; form itself becomes drama.

### 제1악장 Allegro con brio

엄숙한 오케스트라의 서두가 던져진 뒤, 피아노가 곧장 응수하며 두 세력 간의 토론이 시작된다. 여기서 동기 발전은 ‘기교의 연쇄’가 아니라 ‘논리적 변형’이다—짧은 모티프들이 반복적으로 재구성되며 각기 다른 음색과 화성적 배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제2주제의 순간적인 밝음은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확장한다. 발전부의 피아노 패시지는 즉흥적 표정을 띠지만, 전체적으로는 엄밀하게 조직된 논증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베토벤 자작 카덴차는 이 악장의 철학적 긴장을 응집해 들려주는데, 카덴차 안에

서 우리는 ‘솔로의 즉흥적 독백’이 어떻게 전체의 논리로 귀결되는지를 목격한다. 이 악장의 핵심 감상 포인트는 음량의 상승 자체가 아닌 리듬·화성·텍스처 변화가 빚어내는 심리적 압박이라는 점이다. Following the orchestra’s solemn opening, the piano answers at once and a debate begins. Motivic work here is not a chain of virtuoso formulae but a process of logical transformation; short ideas are recast in new timbres and harmonic frames to gain new meanings. The secondary theme’s brief light does not promise resolution; it widens the field of questions. Pianistic passagework may sound improvisatory, yet it is calibrated to strengthen the argument. Beethoven’s own cadenza compresses the movement’s philosophical tension: an apparently spontaneous monologue that resolves back into form. The central listening cue is the psychological

pressure generated by changing rhythm, harmony, and texture—rather than by sheer loudness.

### 제2악장 Largo

E장조로 전개되는 라르고는 1악장의 격렬함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요를 불러온다. 피아노의 첫 소리는 거의 독백에 가깝고, 오케스트라는 필수적인 공간만을 남겨둔 채 그 독백을 받쳐준다. 이 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백의 사용’—음과 음 사이의 정지, 지속, 그리고 그 지속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농축이다. 베토벤은 화음을 낭만적으로 확장하기보다 기동처럼 엄격하게 세위 각 변화가 곧 의미적 전진으로 느껴지게 한다. 절정은 소리의 폭발로 도달하지 않고 깊은 호흡으로 이뤄지며, 청중은 소리의 감소와 회복 과정을 통해 내면적 성찰의 흐름을 체험한다. E장조라는 ‘원근법



[2악장]



[3악장]

적’ 조성 전환은 c단조의 어두움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감정적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

In E major, the Largo offers a plane of stillness far removed from the first movement’s urgency. The piano speaks almost in soliloquy while the orchestra preserves essential space around it. The movement turns on the handling of silence—rests, sustains, and the concentration of meaning within duration. Rather than letting the harmony bloom romantically, Beethoven sets each sonority like a pillar so that every change feels like a step forward. The apex arrives through deepened breathing, not eruption, and listeners sense inward reflection via the ebb and return of sound. E major functions as an emotional safe distance from C minor, a deliberate change of perspective.

### 제3악장 Rondo. Allegro

마지막 악장의 론도 테마는 짧고 단호하며, 피

아노와 오케스트라가 번갈아가며 주제를 밀고 당기는 모습이 전개된다. 에피소드에서의 변조와 리듬 변형은 곡의 긴장을 구조적으로 조절하고, 피아노의 아르페지오·스케일·옥타브 운동은 운동감을 청각적으로 변환한다. 무엇보다 이 악장은 단조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다장조로 전환되며, 그 전환은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서 ‘투쟁→성찰→환희’라는 베토벤적 서사의 압축적 완결을 보여준다. 기교는 목적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화려한 테크닉의 순간마다 그것이 전체 서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의식하면 감동이 배가된다.

The finale’s rondo theme is terse and decisive; piano and orchestra push and pull the idea in alternation. Modulations and rhythmic tweaks in the episodes regulate tension structurally, while arpeggios, scales, and octave drives translate motion into sound. Most importantly, the music shifts from minor to a final C major, completing Beethoven’s compact narrative of struggle, inwardness, and joy. Virtuosity is not the goal but the means by which a

unified character emerges; noticing how each brilliant flourish serves the whole heightens the impact.

두 작품은 모두 c단조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베토벤은 이를 개인적·극적 드라마의 토대로 삼아 ‘논증적’ 형식을 강화했고, 브루크너는 같은 조성을 공동체적·종교적 시간으로 확장하여 ‘호흡’의 구조를 만들었다. 공통적으로는 짧은 모티프의 경제와 느리고 넓은 프레이즈에 의한 시간의 확장을 채택한다. 이 두 차이를 귀로 직접 확인하는 것—동일한 음형과 조성이 두 작곡가의 손에서 어떻게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드는지 느끼는 것—이 오늘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쁨이다.

Both works start in C minor, yet Beethoven turns it into a stage for personal, dramatic argument, while Bruckner expands it into communal, sacred time and breathing structures. Both rely on motivic economy and elongated phrases to expand time, but they deploy those tools differently. Hearing how identical materials yield divergent worlds under different minds is the chief pleasure of tonight’s pairing.

Anton Bruckner (1824–1896)

## Symphony No. 1 in c minor, WAB 101

안톤 브루크너 (1824-1896)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번호 101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1번은 표면적으로는 ‘초기작’으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의 성격적·미학적 기원이 압축된 작품이다. 1865-66년 사이 작곡되어 1868년 린츠에서 초연된 뒤, 브루크너는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말년에 1891년 빈판을 완성했다. 오늘 연주되는 빈판은 원초적 폐기와 말년의 성찰이 공존하는 판본으로, 관현악의 음량과 호흡, 아티클레이션이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진 버전이다. 이 교향곡은 ‘음향으로 지은 대성당’이라는 비

유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짧은 동기들이 반복·변형되며 시간 위에 층을 쌓고, 그 층들이 청중의 귀에 ‘공간’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방법이 이 작품 전반에 걸쳐 핵심적으로 작동한다.

Bruckner’s Symphony No. 1 is often labeled an “early” effort, but it compresses the composer’s aesthetic DNA with striking clarity. Composed in 1865–66 and premiered in Linz in

1868, the work was later revised several times, culminating in the 1891 Vienna version. That version—heard tonight—retains the raw youthful drive while refining orchestral balance, breathing, and articulation. The familiar metaphor of Bruckner’s music as a “cathedral built in sound” fits especially well here: short motives recur and transform, layering along the time axis until the ear perceives them as architectural space.

## 제1악장 Allegro

낮은 호흡의 저음 동기와 불규칙한 리듬 패턴이 서두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 동기들은 곧 현·목관·금관으로 전달되며 음향의 벽을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 브루크너는 전통적 소나타 형식을 표방하지만 '대조-재현'의 즉시적 교체보다, 동일한 동기의 반복·축적·분산을 통해 서사를 전개한다. 특히 발전부에서 나타나는 '블록식 전개'는 한 모티프를 서로 다른 악기군과 악역(音域)으로 이전시키며 각기 다른 음색층을 형성해, 청자는 같은 소리를 다른 '공간감'으로 지각하게 된다. 제2주제는 관계장조권으로 한때 밝게 들리지만, 곧 이어지는 유예와 반향으로 완전한 해제가 지연되며, 그 때문에 긴장감은 오히려 지속된다. 이 악장에서 감상자는 동기가 제시될 때마다 변화하는 음색(악기 편성), 음역, 다이내믹의 미세한 차이를 추적하면 작품의 '시간적 확장'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명히 체감할 수 있다.

The first movement opens with low, breath-like figures and irregular rhythmic patterns, immediately charging the atmosphere. Rather than relying on brisk contrast-and-return, Bruckner builds the narrative by repeating, accumulating, and dispersing a single motive. In the development, a “block technique” moves material across instrument families and registers, creating distinct timbral strata so that identical ideas are heard as different spatial planes. The secondary area briefly brightens in the traditional relative major, yet its release is deferred through deliberate suspensions and echoes—tension persists by design. Listeners may wish to track how timbre, register, and dynamics shift with each return of the motive; those micro-variations are precisely how the movement expands musical time.

## 제2악장 Adagio

현악의 유려한 선율과 목관의 섬세한 응답으로 열리는 이 악장은 '기도'에 가까운 정서를

[1악장]

[2악장]

[3악장]

드러낸다. 선율 그 자체는 단순해 보이나, 브루크너는 이 단순성 속에 시간을 디자인한다—프레이즈는 길게 늘어지고, 화음은 의도적으로 유지되며, 각 음의 지속이 청중의 시간감을 늘리게끔 구성된다. 금관은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서만 개입해 '빛의 조형'처럼 기능하고, 클라이맥스는 폭발적 분출이라기보다 음향의 '열림'으로 나타난다. 이때 주목할 것은 최고점에 이르는 순간의 역설: 볼륨만의 상승이 아닌, 화성 밀도의 환기가 청각적 해방을 만든다는 점이다. 재현에 돌아오면 처음 제시되었던 주제는 단순성과 무게가 더해져 들리는데, 이는 느린 악장에서의 '여백의 기술'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The Adagio opens with supple strings and poised woodwind replies, projecting a prayer-like atmosphere. Apparent simplicity hides a meticulous design of time: phrases are elongated, harmonies sustained, and note values stretched to re-shape the listener's temporal perception. Brass enter only at architecturally chosen points, sculpting shafts of light; climaxes feel like openings rather than detonations. The paradox at the summit is telling: liberation arrives not through sheer volume but through a sudden ventilation of harmonic density. When the primary melody returns, it sounds simpler yet weightier—proof that the movement's “art of silence and spacing” has done its work.

## 제3악장 Scherzo. Lebhaft - Trio. Langsam

삼박의 단단한 악센트와 반복적 악구가 주된 추진력을 제공하는 이 스케르초는 '원초적 춤'의 성격을 띤다. 브루크너는 스케르초를 장난스럽게 처리하지 않고, 집요하고 강인한 리듬 소재로 교향적 긴장을 견인한다. 트리오 부분의 목관 선율은 목가적 안정감을 주지만, 본제의 회귀는 단순한 균형 회복이 아니라 '의지의 회복'이라는 정서적 제스처로 느껴진다. 이 악장에서 미세하게 배치된 악센트(예: 한 마디 내의 2+1 분할 또는 비대칭 악센트)는 전체 추

[4악장]

# Beethoven & Bruckner

진력의 성격을 좌우하므로, 리듬 내부의 작은 비틀림들이 전체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주의해서 들으면 좋다.

The Scherzo's firm triple-time accents and repetitive figures supply a primal kinetic thrust. Bruckner treats the movement not as playful interlude but as a driver of symphonic tension through relentless rhythmic muscle. The Trio offers pastoral repose in the winds, yet the return of the Scherzo reads less as balance than as the restoration of will. Subtle accent placements—2+1 subdivisions or asymmetries within the bar—shape propulsion; attending to these micro-twists reveals how small rhythmic pivots recalibrate the larger energy flow.

## 제4악장 Finale. Bewegt, feurig

피날레는 앞선 악장에서 축적된 동기적 요소와 음향적 층위를 모아 압도적 서사로 완결한다. 짧은 리듬 동기들이 분화·결합하여 오케

스트라 전역으로 확장되고, 금관·타악·현악의 결합은 장대한 아치 구조를 형성한다. 브루크너는 점층과 정지의 반복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연출하는데, 그 순간들은 섬광처럼 한 번에 터지기보다 넓게 번지는 빗처럼 청중을 감싸며 공간을 재구성한다. 종결부에서 c단조의 무게는 최종적으로 확고히 발표되며, 우리는 '완성된 조각'이 아닌 '완성 과정의 증언'을 들은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The Finale consolidates motives and timbral layers accumulated across the symphony into an overwhelming narrative. Short rhythmic cells split and recombine, radiating across the orchestra; brass, percussion, and strings arch into vast spans. Climactic episodes arise through cycles of accumulation and suspension, bathing the hall in light that spreads rather than explodes. In the coda the gravity of C minor is asserted one last time, leaving the impression not of a polished statue but of witnessing the act of construction itself.

Jean Sibelius  
Valse triste, op. 44

시벨리우스  
슬픈 왈츠, 작품번호 44

Jean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작품번호 47

Jea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5번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82

## 시벨리우스 특별 콘서트



10. 16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바이올린 송지원

SYMPHONY  
SONG  
SHIN IK-HAM

스티븐 허프 경  
오케스트라를 위한  
바스크 환상곡 '아가타'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6

스티븐 허프 경  
피아노 협주곡

Sir  
Stephen  
Hough  
Plays

스티븐 허프

피아노  
협주곡

Grieg  
&  
Stephen  
Hough

11. 22 Sat  
7:30 PM  
LOTTE CONCERT HAL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코렐리  
크리스마스 협주곡 제 8번  
사단조, 작품번호 6



송  
음  
악  
회

The Sound  
of  
'JOY'

12. 18 Thu 7:30 PM

LOTTE CONCERT HALL

지휘 함진익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시즌패스  
Season Pass

조기구매 할인 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10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8회	→ 960,000원 →	672,000원
	R석	8회	→ 800,000원 →	560,000원
	S석	8회	→ 560,000원 →	392,000원
	A석	8회	→ 400,000원 →	280,000원
30%	A석	8회	→ 400,000원 →	200,000원
	B석	8회	→ 240,000원 →	100,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 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 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 R석 ☐ S석 ☐ A석

수령 방식 ☐ 현장수령(추천) ☐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 예우
마에스트로	3억 원 이상	· 기업연주* 6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 소식 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 원 이상	· 기업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 실황 음원 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합신익 기업방문 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 광고
말러	5,000만 원 이상	· 기업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추가 구매 티켓 10%할인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2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 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브루크너	2,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슈베르트	1,000만 원 이상	· 실내악 연주 1회 제공 · 2025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베토벤	5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 원 이상	· 2025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 원 이상		



-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Enabling Tomorrow's Semiconductor

www.tse21.com

@life.tse

TSE

... FA & BIO분야 ...

# 글로벌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GOLFZON NEWDIN GROUP



HANDIUM

# PANAMA GEISHA

## 콜드브루 커피원액 출시

‘신의커피’로 불리는 최상급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핸디엄 콜드브루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PANAMA  
GEISHA



더 알아보기

HANDIUM

핸디엄은 자체 개발 기술로 프리미엄 커피 원액을 제조하는 콜드브루 전문 브랜드입니다.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콜드브루 커피원액 예가체프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다크 블렌드   에스프레소 커피원액 디카페인

온라인 스토어   [www.handium.co.kr](http://www.handium.co.kr)

고객센터   1599-2681 (홈페이지 실시간 대화)

주요 판매처   이마트, 쿠팡, 비마트(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선물하기

HANDMADE FOR YOUR PREMIUM

#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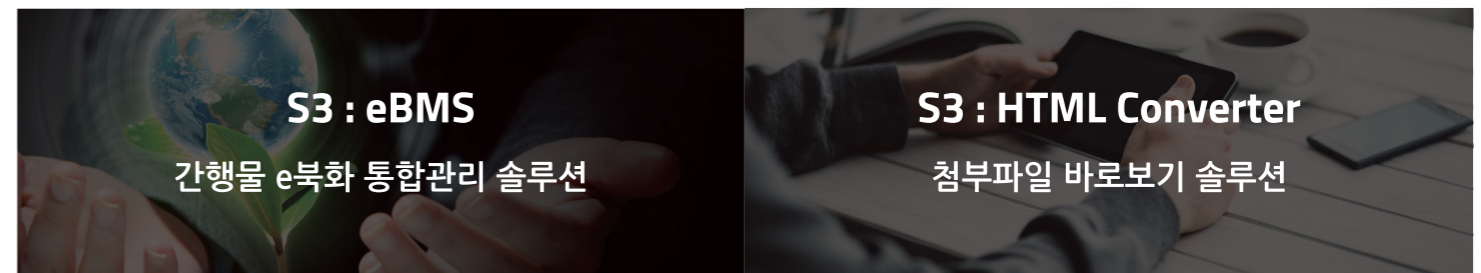
###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 96 1510(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메일문의 : shlee012@k2web.co.kr / 상담시간 : 09:00 ~ 18:00

02-575-7721